평화 화합 상징 '2,620 캐럿' 에메랄드 불상

경매서 태국 보석상들이 원석 낙찰
희소성 주목…불상 조성키로 합의
단일 보석공예로는 최대크기 눈길
모든 두려움·분쟁 없앤단 뜻 담겨

박영빈 객원기자



2620캐럿에 달하는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 사진출처=국제보석학회

2,620캐럿의 에메랄드 원석으로 조성된 불상이 화제다.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불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조각으로, 방콕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전했다. 지난 10월 24일 미술사와 고고학을 보도하는 외신 '에인션트 오리진'은 현재 태국 모처에 봉안된 불상 이야기를 전했다.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 '에메랄드 불상'이라고 하면 태국의 수도 방콕의 왕실사찰인 왓 프라케오 사원에 모셔진 불상을 말한다. 이름은 에메랄드이지만 실제로는 준보석인 벽옥으로 조성된 불상으로 높이 약 66cm에 선정인을 한 좌불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은 부처님 재세시에 나가세나라고 하는 현자가 비슈누와 인드라신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불상이다.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가 1434년에 태국북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상이 복장되어있던 불탑에 번개가 내리치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전한다. 이후 불상의 녹색빛깔로 인해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수세기 동안 다시 여러 곳을 떠돌았다. 최종적으로 1779년 방콕이 태국의 수도가 될 때 당시 태국 국왕이 에메랄드 불상을 방콕에 사원을 짓고 봉안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에메랄드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모셔지며,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계절에 따라 태국 국왕이 직접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가사와 보관을 공양 올리는 법요식을 봉행하여 그 신성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한편 이 에메랄드 불상에서 영감을 받은 진짜 에메랄드 불상이 조성됐다. 1994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3,600캐럿의 에메랄드 원석으로 조성된 이 불상은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불상조성을 기획한 국제 보석 전문가 제프 버그만은 "방콕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과 신성성, 혹은 진위여부로 우위를 가지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방콕의 불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버그만은 "이 정도 크기의 천연 에메랄드 원석은 매우 드물기에 당시 전세계 보석상들이 경매에 뛰어 들었고, 최종적으로 태국의 보석상들이 낙찰 받아 태국으로 운송됐다. 보석상들이 각자의 몫으로 원석을 쪼개기 전, 그 희소성에 주목하여 함께 불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오랜 협상 끝에 버그만은 원석을 불상으로 조성한 후 태국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온전한 원석을 인수했다.

버그만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사와 자문을 받아 모든 두려움과 분쟁을 없앤다는 뜻이 담긴 시무외인을 한 불상 입상을 조성했다. 방콕의 에메랄드 불상과 같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뜻이었다. 불상을 조성할 조각가는 미얀마에서 가장 뛰어난 불상 조각가인 아웅네인이 선정됐다.

불상은 최종적으로 지난 2006년 2월에 완성 되었으며, 이후 태국과 스위스의 권위 있는 보석연구소에서 감정을 받았다. 현재 불상은 2,260캐럿의 통 에메랄드로 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기록상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조각상은 86,000캐럿이다 그러나 그 조각상은 이 불상처럼 전체가 투명하지 않으며 보석적인 가치도 떨어지기에 이 불상과 같은 보석 공예품은 유일무이하다"고 평가했다.

버그만은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불상의 소재를 밝힐 수는 없으나, 태국 국내 안전한 장소에 봉안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불상이 언젠가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印, 2천년 전 발우 발견…명문도 남아

기원전 1세기 제작 추정
"불교 영향력 증명 유물"



텔랑가나 주에서 발견된 석제발우, 프라크리트어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사진 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북서부의 유적지들을 조사하던 고고학 연구팀이 기원전 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제발우를 발견해 화제다. 지난 10월 30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세계 최고(最古)의 발우일지도 모를 석제발우의 발견 소식을 전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북서부에 있는 텔랑가나 주에서 사타바하나 시대(BC.230-AD.220)에 제작된 석제발우가 발견됐다. 발우는 만지라 계곡에 산재한 고대 유적지 중 카마레디 지구의 반스와다 마을 유적을 발굴 중에 출토됐다. 발우는 검은 돌을 깎아 만들었으며 외면에 브라흐미 문자로 한 줄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브라흐미 문자는 고대 인도문자중 하나로 아쇼카 대왕의 석주에 새겨진 칙령들은 모두 이 브라흐미 문자로 전해지고 있다.

발굴팀을 이끈 텔루구 대학의 조교수인 마 스리니바산 박사는 "석제발우는 만지라 계곡에서 발견된 여섯 번째 브라흐미 비문"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비문은 마우리아 시대와 사타바하나 시대에 속하며 텔랑가나의 초기역사 중 특히 사타바하나 시대에 이곳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전했다.

발우를 정밀조사한 인고고고학조사국(ASI)의 무니라스남 레디 박사는 "석제발우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로 추정한다"면서 "발우의 구연부 외측에 산스크리트어의 속어인 프라크리트어로 '히마 부히야(Himabuhiya)' 혹은 '히마 부디야(Himabudhiya)'라고 새겨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발우는 '히마'라는 이름의 비구니 스님이 소지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이 전해지면서 해외 불교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우의 소재가 돌이라는 점에서 한 누리꾼은 "율장에는 출가자의 발우를 돌, 흙, 철 등으로 만들라 한다, 부처님께서도 석제발우를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된 것에 대해 고무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명문이 다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우로 독단하긴 이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만지며 부처님 떠올린다…日, 시각장애인 위한 불상

실명 진단 받은 중견 조각가
전통 건칠기법으로 불상 조성



조각가 미와 미치요가 건칠기법으로 조성한 '만지는 불상'. 사진출처=도쿄신문

시작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는 건칠불상이 전시돼 화제다. 지난 10월 25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보기 드문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불상을 소개했다.

일본의 중견 조각가로 유명한 미와 미치요는 최근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감상자들이 직접 손으로 그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미와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미술전을 감상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 만짐으로써 그 형태를 확인하며 감상할 수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작품을 촉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시의도를 밝혔다.

미와는 도쿄 조형대학교와 도쿄 예술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했고 옛 기법을 이용한 현대적 표현의 목조각 작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나라의 명찰인 토다이지(東大寺)와의 인연으로 옛 조사상을 복각하거나 사찰의 본존불을 조성하는 등의 실력파 작가다.

그러나 약 15년 전, 미와는 망막 색소변성증을 진단받아 시력이 점차 떨어지며 지난해 결국 실명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미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조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토로 만든 원형에 옻을 먹인 삼베를 겹쳐 만드는 건칠 기법의 조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칠기법은 불상 조성하는 전통적인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 등장한 불상 역시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사람들이 직접 만지면서 최대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불상보다는 여기저기 부풀어 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직접 불상을 만진 한 감상자는 "겉으로 보기엔 돌처럼 검고 딱딱해 보였지만, 실제 만지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는 감상을 전했다. 또 다른 감상자는 "흔히 불상이라고 하면 멋진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뭉툭하게 여기저기 도드라진 부분을 만지며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전시 갤러리 담당자는 "눈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느끼는지 체험해 주길 바란다"며 이후 미와 작가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성지서 리얼돌 점안…"불교 모독"

쉐다곤 파고다 내 주차장서 진행
"불교성지 모욕 행위" 비판 일어



리얼돌 점안식 현장.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지난 10월 25일 영국의 '데일리메일' 'CNN 인도네시아' 등 해외 주요외신들은 미얀마 불교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서 발생한 리얼돌 점안식이라는 기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미얀마 양곤의 랜드마크이자 성지로 불리는 쉐다곤 파고다에서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을 불상처럼 모시고 점안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점안식을 이끈 자르니 아웅은 즉각 체포됐다. 지난 10월 22일, 자르니 아웅을 필두로 한 7인의 괴한은 오전 7시경 쉐다곤 파고다에 도착했다. 리얼돌에 미얀마 전통의상을 입힌 후 왕관 등의 장식구를 부착하고 사원 입장을 시도했으나 출입통제로 인해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경내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점안식을 진행했다.

성지에서 성인용품을 공개적으로 점안하는 사건은 전대미문으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을 촬영한 영상에는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67cm 리얼돌 2개가 합장을 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며 괴한들이 염불을 외우며 꽃과 과일을 공양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영상이 SNS등을 통해 퍼지자 미얀마 종교문화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리얼돌 점안식 사건을 일으킨 주동를 불교모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발표와 함께 즉각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불교성지에서 버젓이 불교를 모욕한 행위이며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며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장주 (8m 100개 포장)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